

광주매일신문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4강 '성공 영화로 보는 소통과 혁신'

이승재 영화평론가

# “혁신적 생각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 스필버그·카메론 감독 등 사례 들어 '혁신' 강조 “한국 영화도 새로운 장르 계속 도전해야 발전”

“현재처럼 한국영화의 위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수록 한국영화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 생각’이 필요합니다.”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7일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1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4강에서 이승재 영화평론가가 '성공 영화로 보는 소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평론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크게 뒤바뀐 영화 시장을 얘기하며 가장 큰 문제로 영화 관람료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극장을 찾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한국인 1명당 평균 영화 관람 편수가 4.37편으로 세계 1등, 영화 강국이었던 한국 영화관들의 가격 인상, OTT 강세 등으로 영화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로 인해 지난해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도 6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우니 예산이 적은 영화만 등장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악순환으로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이 영화계를 떠나는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고 현 영화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원우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알아보자며 본격적인 강의에 돌입한 그는 캐나다의 대표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을 사례로 들어 강연을 이어갔다.

이 평론가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인지도가 높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43년 전 혼자 영화 연출법을 독학했다는 이유로 무시 받아야 했다”며 “아무도 찾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실력을 입증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얻은 영화감독이 됐다”고 말했다.

그가 연출한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등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새로운 이야기거리로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극장을 찾지 않아 폐장의 위기를 겪었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며 이렇듯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 생각’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7일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1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4강에서 이승재 영화평론가가 '성공 영화로 보는 소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지난 60-70년대 흑백·컬러TV가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극장이 사라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던 시절 스티븐 스필버그의 생각이 달랐다”며 “스필버그는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초의 블록버스터인 ‘쥬스’를 선보여 극장의 부흥을 다시 이끌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준 천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는 27편 뿐”이라며 “그중 올해 2월 천만 관객을 동원한 파묘는 한국영화 최초의 오컬트 영화로 장재현 감독의 새로운 장르 도전 덕에 흥

행할 수 있었다”고 혁신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명대사를 언급하며 혁신과 도전의 중요성은 영화계뿐만 아닌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승재 평론가는 “영화 아메리칸 뷰티 대사 중 ‘오늘은 당신에게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란 대사를 가장 좋아한다”며 “남은 인생은 우리의 가장 젊은 날로 무엇을 저질러도 늦질 않고 어떠한 혁신을 해도 늦지 않는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우들도 새로운 혁신을 통해 꼭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안태호 기자



## 동구,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장한 아버지 등 표창

광주 동구는 8일 “전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동구는 행사에 참석한 관내 거주 어르신 300여 명 모두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했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 장한 아버지 3명과 효행자 10명, 요양원 등 효 실천 단계에서 근무하

는 종사자 17명에게 구정장 표창을 수여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돌봄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정 기자



## 담양도서관, 한재초교서 ‘진로 개발 특강’ 운영

담양도서관은 8일 “전날 한재초등학교 5학년 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 개발 특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직업인을 섭외해 진로·직업 정

보를 알려주고 직업과 관련된 체험을 해보는 활동이다. 초빙된 특강 강사는 인스타툰 ‘그냥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정배영 웹툰 작가로 학생들은 웹툰 작가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맛 만화 그리기’ 체험 시간을 가졌다. /담양=정승균 기자

## 목포경찰-금융기관 ‘피싱범죄 피해 예방’ 간담회

목포경찰서는 8일 “전날 경찰서 3층 이준규 홀에서 피싱범죄(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금융기관 6곳에서 참석해 최근 피싱범죄 발생 및 피해 현황 등을 공유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범죄 피해 예방 우수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다액 현금을 인출하거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 신고하고, 경찰은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출동해 피해 예방·조동 조치를 통한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김범삼 목포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이 전화금융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특히 은행창구에서 다액 현금 인출 시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112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화순전남대병원, 어버이날 ‘쾌유 기원’ 행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어버이날을 맞아 빠른 쾌유 기원 행사를 마련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8일 민정준 병원장과 이어경 간호부장 등 의료진들이 13개 병동을 찾아 70세 이상 입원환자 170여명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했다.



민정준 병원장은 “병원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주고 위로의 인사를 전했다. 또 이날 병원 1층 로비에는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는 내원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어버이날 기념 외래 포토존’이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기수희 기자

## 한국항공공사 광주공항 ‘ESG 경영 선포식’ 개최

한국항공공사 광주공항은 8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광주공항 임직원 및 노동조합과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주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공항은 ESG 경영 비전과 함께 분야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방향, 13대 전략과제 및 33개 실천과제를 도출해 ESG 경영 체계 확립을 다짐했다.

이근수 광주공항장은 “이번 선포식은 한국항공공사의 ESG 경영 이념이 광주공항 현장 경영에 뿌리내려 실천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정 기자

## 나주경찰, 아동 실종예방·교통안전 캠페인

나주경찰서는 “최근 2022년 ‘나주 어린이 큰잔치’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진 등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나주경찰서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참여했으며, 친근한 경찰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경찰차, 대형 오토바이 시승, 사진 찍어주기, 어린이 보행안전 수칙 OX 퀴즈 등을 진행했다.

또한 아동안전·실종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등록을 실시하고, 경찰 제복 입기 체험을 마련했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나주의 모든 어린이가 교통사고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정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승환 기자

## 안경환 영암 대성중기 대표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영예



안경환 영암 대성중기(주) 대표가 제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8일 영암군 등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제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안경환 대표는 목포교도소 교정위원으로 2003년부터 보라미봉살활동, 멘토링데이, 불우수행자 자매결연을 통해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안 대표는 “영광스런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하고,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고 무거운 마음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법을 존중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장성소방, 지역 공시장 화재안전조사

장성소방서는 8일 “장성군 내 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에 대해 적극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시장은 화기 취급, 위험물·가연성 자재, 낮은 안전의식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성소방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장 화재안전조사와 더불어 용접 등 중요 공사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장성소방서는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공시장 내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 광주사회서비스원-월드비전 광주전남본부 협약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본부장 정병원)와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취약아동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는 협약에 따라 가족 돌봄 청소년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아동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안정망을 통해 보호와 지지를 제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수희 기자

## 결혼

▲박계옥(신도시건축사 대표)·박영자씨 장남 철오(무안청년군, 최병찬·최진숙씨 장녀 윤정(무안청년)양=11일(토) 오전 11시 무안 남약소가 아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엘렌홀(061-284-0010).

## 부음

▲고영채씨 별세, 고한용(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씨 부친상=발인 9일(목) 오전 10시 여수 제일병원장례식장 VIP 2호실(061-602-4444).